법화종 안정사 주지 A스님 승적 논란

2015년에 탈종했던 B스님과 승적번호 · 입종시기 동일해
승려 승적부 같은 페이지서 A스님 사진 · 인적사항 달라

A스님, 2014년 법화종 전종수계 은사 승헌스님은 당시 체탈도첩 징계로 자격 없어
총무원 "면밀 조사 진행 중"


토지 증여에 이어 주지스님 승적으로 논란이 일고있는 법화종 종찰 안정사 전경.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을 대표하는 종찰이자 천년고찰인 안정사 주지 A스님과 관련, 승적 논란이 일고 있다. A스님의 승적번호와 입종시기가 지금은 법화종을 탈종한 B스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승적등록 부상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법화종 총무원은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승적번호는 법화종에 승려로 등록할 때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특히 해당 승려의 법화종 승적 취득시기를 증명한다는 점에서, 공찰 주지 및 종무직 소임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승적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향후 A스님의 안정사 주지 자격 여부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승적등록부상 A스님의 승적번호는 76**번, 법화종 승적 취득 및 입적일은 2014년 1월 15일로 확인된다. 은사는 안정사 前 주지 승헌 스님으로, 2014년 2월 10일 의상암에서 승헌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승헌 스님은 최근 안정사 부지를 증여받아 논란이 일었던 (사)영산재보존위원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本紙 1349호 참조〉

이번 논란의 핵심은 A스님의 승적번호와 승적 취득시점이, 과거 법화종 승려였던 B스님과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B스님 역시 승적번호 76**번으로, 승적 취득시점은 2014는 1월 15일로 확인됐다.

총무원 관계자에 따르면 "수기 기록을 하는 법화종 시스템상 일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두 스님의 승적번호와 승적 취득시점이 완전히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승려등록부와 주지승적등록부를 보면 같은 위치에 사람만 다르게 기록된 점도 납득이 어렵다. 때문에 B스님이 탈종한 후 해당 승적을 말소시키지 않고 A스님으로 덮어씌우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법화종 승적부는 한 페이지당 3명의 스님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되는 방식이다. 한 스님당 승적번호와 사진, 소속사찰과 인적사항 등이 양식에 따라 수기로 기재되는데, 문제가 된 A스님과 B스님의 기록위치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해당의혹을 조사 중인 총무원 관계자는 "A스님이 기재된 페이지와 B스님이 기재된 페이지가 똑같고 다른 두 스님의 기록내용도 동일한데, 그 중 한 사람의 사진과 인적사항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B스님은 2014년 입종 당시 다른 종단에서 법화종으로 전종하면서 개인사암을 법화종 사찰로 등록하고 주지 임명을 받았다. 그리고 1년 뒤인 2015년 "법화종의 종지종풍을 따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화종을 탈종했다.

탈종시 해당 승려에게 부여된 승적번호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과적으로 여전히 승적번호가 남아 A스님의 승적번호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B스님은 "2015년 탈종 당시 직접 법화종 총무원을 방문해서 등록을 말소시켰고 승려증을 반납했다"며 "당시 사무행정을 보던 사람에게 승려증을 반납한 뒤 확인서도 받았다"고 증언했다.

A스님이 2014년 승헌 스님을 은사로 수계를 받고 법화종에 입종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 승헌 스님은 2013년 종단으로부터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아 2014년 1월 당시 소속 승려로서의 권한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법화종 총무원 측은 "A스님의 승적과 관련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쟁점사항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후속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더위 여름나기 불교콘텐츠 눈길

조계종포교원, 특별웹진
'오분순삭, 찰나멸'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불교 크리에이터 창작물을 엮어 SNS에 소개하는 특별웹진을 제작했다. 포교원은 최근 '불교 콘텐츠로 오분순삭, 찰나멸'이라는 웹진을 발간했다. 이번 웹진에서는 '마음을 그리는 붓' 장세경 씨의 '나를 일깨우는 맑은향기, 연꽃 민화그리기', '동해바다와 낙산사 사찰풍경 & 해수관음 그리기', 영재영 유튜브 채널의 'Drawing Meditation' 등 조계종 포교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심심불교의 인스타그램 컷툰 '세상에서 제일 시원함', 크리에이터 네일셔닝의 인스타그램 네일아트전 '불교 멋쟁이라면' 등이 소개됐다.

이번 웹진 콘텐츠는 한여름 무더위를 불교 수행이나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장세경 씨의 '나를 일깨우는 맑은향기, 연꽃 민화그리기'에서는 동해 삼화사 사찰과 삼화사 계곡 풍경, 사찰에서 불화를 그리는 모습과 완성된 작품이 함께 소개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포교원의 불교콘텐츠 웹진 발간은 조계종 포교원의 제2기 불교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일환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 5월 7일 제2기 불교크리에이터로 영상 콘텐츠 '마음을 그리는 붓'의 장세경 씨와 웹툰 콘텐츠 '만신화'의 이재영 씨 등 2명을 비롯해 우수 크리에이터로 자홍 스님 · 이연수 · 장수현 씨 등을 선정한 바 있다. 포교원은 온라인 웹진을 매주 발행해 불교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포교원은 "불교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해 육성하여 불교 콘텐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보다 다양한 불교콘텐츠를 불자들이 SNS 등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불교문화〉 8월호 발간

'불교와 리더십' 특집 다뤄
암자기행, 불교 詩 읽기도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 포교를 위해 발행하는 대중 문화지 〈불교문화〉 8월호(통권 제152호)가 발간됐다.

8월호 특집은 '불교와 리더십'으로 리더십으로서 원효의 화쟁 회통 논법과 서산대사의 승병활동을 중심으로 국가 위기에 나타난 불교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불자로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 붓다와 예수의 리더십 등 역사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기업, 종교에 요구되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집에 참여한 전문가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 백원기 동방대학원대학 교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다.

이밖에도 문화 속에 깃든 불교와 철학이야기들이 담긴 기획들도 눈길을 끈다. △ 작은 절 큰 믿음, 암자기행- 하늘에서 본 경주남산 보리사 △상생의 철학으로 제안하는 '2021년 '육식을 줄이자' 캠페인 △차차석 교수의 〈법화경〉 강의 △한자경 교수의 '유식이란 무엇인가' △나의 불교 이야기- 불교를 만나 삶의 현장을 수행의 장으로 삼은 성태용 거사 △불교와 신경과학의 세계 △일상 속 건강 지키기 △불교 詩 읽기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도쿄 올림픽 불자선수 승전보 잇따라

7월 28일 펜싱 대표팀 2연패
남자사브르 단체전서 금메달
여성 양궁대표팀도 '금' 획득

불자 선수들의 도쿄올림픽에서의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다. 불자선수들이 이끄는 남자 펜싱 대표팀은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2연패 쾌거를 이뤘다.

불자선수인 김정환, 구본길 선수는 7월 28일 오상욱, 김준호 선수와 함께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펜싱 대표팀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우승한 바 있다. 특히 불자인 김정환 선수는 38세의 고령에도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펜싱 사상 최초 올림픽 메달 3회 획득 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단체전 메달로 총 4회 메달 획득이란 기록을 세웠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양궁에서도 불자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 졌다. 세계랭킹 1위 강채영과 장민희, 안산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대표팀은 7월 24일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러시아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양궁대표팀 구성원은 모두 불자다. 특히 강채영 선수는 평소 진천선수촌 법당을 자주 찾는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또 불자인 김제덕 남자 양궁 선수도 7월 24일 양궁 혼성단체전에서 네덜란드 대표팀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불자 선수는 펜싱 김지연, 체조 양학선 등 70여 명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올림픽 선수단장, 정성숙 진천 선수촌 부촌장 등 불자지도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펜싱대표팀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체육회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장 퇴휴 스님은 "국가를 대표해 이들이 4년간 흘린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기원할 것"이라며 "전법단에서도 응원과 기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7대 종교 평신도 '탄소 중립' 실천

8월 23일 제자리 찾기 운동 선포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이 포함된 7대 종교 평신도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대표회장 손병선)는 비대면 종교화합, 이웃사랑과 탄소중립 실천 등 제자리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7월 23일 56차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과 세부실천 내용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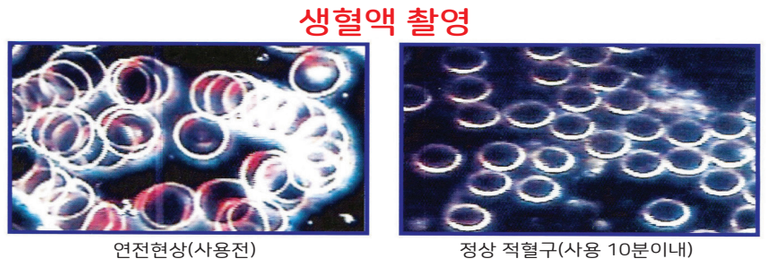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올해 '가정 · 생명' '정의 · 평화' '기후 · 환경' '소통 · 치유' 등 4가지를 목표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팬데믹의 근본 원인인 기후환경 개선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각 종교 평신도들은 8월 23일 제자리 찾기 운동을 선포하고 4대 덕목의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실천발표회를 열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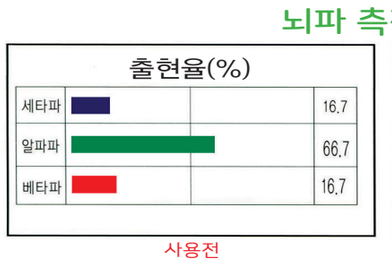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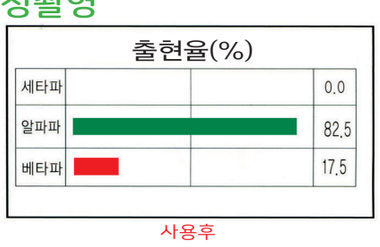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 치약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비누와 ORAL MATE® 치약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화 시킬수는 없을까요?

1. 바이러스는 외부에서 옷이나 머리카락에 붙어있어 BLOOD MATE® 비누로 씻어주면 바이러스를 중화시킬수 있다. 옷은 세탁이나 햇빛으로 중화시킨다.
2.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어도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4일 정도를 목에 붙어있다가 폐로 들어가므로 그 기간 동안에 ORAL MATE® 치약으로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삼키면 폐나 장으로 들어가는 바이러스를 중화시킬수 있을 것이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핑크색: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